

공부하는 야구선수의 꿈...서울대 이정호, 다시 배트를 들다

베이스볼 피플

5년 전 운동·학업 두 토끼 잡아 서울대 합격
방향 끝에 군 입대...벌써 전역 한 달 앞으로
신인드래프트 선택 받았다...몸 만들기 한창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2년은 아마추어 야구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때로 기억된다. '공부하는 야구선수'의 첫 번째 사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당시 덕수고 3학년 이정호(23). 외야수 겸 투수로 활약하며 졸업 시즌 3할대 타율을 기록했던 이정호는 학업을 통해 2012년 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이른바 '이정호 신드롬'의 시작이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훈련에 쏟아야 하는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들을 공부로 제치고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는 단연 화제를 모았다. 엘리트선수는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세간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린 이정호는 당시 교육계와 체육계가 머리를 맞댄 '공부하는 운동선수'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하며 대학 입학 전부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까까머리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을까.

●휴가 중 유소년야구 공청회 찾은 '공부벌레'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소년 야구선수 부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엔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코리아 특급' 박찬호 KBO 국제홍보위원이 자신의 메이저리거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선진국형 부상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던 순간, 한 청년이 손을



'공부하는 야구선수'로 잘 알려진 서울대 이정호(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소년 야구선수 부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만수 KBO 육성위원의 조언을 듣고 있다. 다음달 군에서 전역하는 이정호는 이제 제 2의 야구인생을 앞두고 있다. 고희준 기자

높이 들었다. 이정호였다.

궁금증이 많은 듯 보였다. 이정호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 이에 박찬호는 "첫 질문이 스트라이크라면 세 개 모두 받아주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대선배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심한 이정호는 이내 질문 보따리를 풀어갔다. 한미일 야구를 모두 경험한 박찬호에게 세 나라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은 뒤 현역시절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을 얼마나 두었는지 질문하며 의문부호를 하나둘 지워갔다. 박찬호는 후배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신이 난 듯 자신의 노하우와 의견을 세심하게 전달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 그를 만났다. 이정호는 "이제 전역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며 웃어보였다. 대학 3학년이던 2015년 10월 군에 입대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병역의 의무를 소화하고 있다. 까까머리 소년은 어느덧 말년 병장이 돼 다음달 5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말년휴가 기간에 공청회를 찾은 이유는 하나.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정호는 "야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와 행정,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던 터에 최근엔 야구에 대한 깊은 궁금

증이 새로 피어난 듯했다.

대학생활을 묻자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정호는 "사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방향을 계속했다. 3학년이 될 때까지 운동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을 멈추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또래 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며 자각지심을 느꼈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학교를 잠시 떠나 군대라는 새로운 곳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정호는 "최근 다시 결심을 했다. 운동을 이어가 꼭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선택을 받았다. 실력을 갖춘 외야수로서 도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후배들에게 귀감 되는 사례 남기고 싶다"

이날 이정호는 여러 야구계 선배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스승인 이광환 서울대 야구부 감독을 비롯해 평소 인연이 깊은 이만수 KBO 육성위원 등으로부터 덕담을 들었고, 동시에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최근 걱정거리는 그의 어깨 상태다. 이정호는 "2015년 어깨에 무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슬랩(Slap, 근육파열의 일종)과 옷자란 뼈가 동시에 걸렸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 군에서의 보강 운동을 통해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역 후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덕수고 후배 김산호(17)를 만날 예정이다. 2학년이 재학 중인 김산호는 5년 전의 이정호처럼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가는 선수다. 전교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다방면에 능력이 뛰어나다. 이정호는 "지금의 (김)산호처럼 나 역시 학교 다닐 때 덕수고 정윤진 감독님께서 '성적이 떨어지면 야구부에서 내쫓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면서도 야구가 좋아 공을 놓지 않았다"면서 "누가 뭐래도 (김)산호의 처지를 잘 아는 이는 나 아니겠는가. 대학 입시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는 이제 야구인생 2막을 앞두고 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몸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톱 날 때마다 서울대 야구부 훈련에 함께하며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다. 자신의 뒤를 따를 후배들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서투르게 준비할 수 없다.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서울대에 왔다고, 프로에 간다고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사람이 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습니다."

고희준 기자 shulout@donga.com



에이핑크 윤보미 '완벽한 시구'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가 2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삼성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윤보미는 마운드 위에서 투수판을 밟고 포수 미트에 노바운드로 던져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적토마' 이병규, LG의 영원한 9번으로

내달 9일 영구결번식·은퇴식 거행
LG서 역대 2번째...야수로는 최초

'적토마' 이병규가 LG에서 야수로서는 첫 번째, 팀으로서 김용수에 이어 두 번째 영구결번의 주인공이 됐다. 구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규의 등번호 9번을 영구결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구결번식은 7월 9일 한화와의 홈경기 후 마무리 은퇴식과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이병규는 쌍둥이구단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1997년 단국대를 졸업하고 LG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이후 2016년까지 통산 17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1741경기에 출장했고 통산 타율 0.311, 안타 2043개, 홈런 161개, 타점 972개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그는 프로 입단 첫 해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그해 타율 0.305, 7홈런, 69타점이라는 빼어난 기록을 달성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하더니 이후 KBO리그 역사에 남는 기록을 써내려갔다.

김기태의 매력이 KIA의 전력이다

김영준의 18.44m

정상까지 동행하는 관계 중심적 리더
선수 가족까지 배려... '휴머니즘 야구'

위업과 배려. 이 두 가지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다. 탁월한 지혜나 용맹한 자질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긴 하겠지만 지도자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지혜나 용기 같은 것은 아랫사람들이 갖추고 있으면 될 일이다. 일본의 '국민자' 시바 료타로는 전국시대 무장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하통일 비결을 이렇게 통찰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KIA 김기태 감독의 가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김 감독은 '관계 중심적 리더'다. 야구를 대하는 식견이나 정밀함이 아니라 스킨십을 통해서 김 감독은 팀을 강하게 만든다. 내가 최고가 되는 쪽이 아니라 최고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상으로 '동행'하는 스타일이다.

데뷔 9년차 KIA 정용운이 승리를 얻을 때의 에피소드다. '양현종과 헥터가 정용운의 승리를 지켜주겠다'고 서로 불펜 등판을 자청한 것이다. 투구리듬이 깨질 것을 우려한 김 감독의 만류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통했다. 헥터는 14일 시작 롯데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시즌 10승을 달성한 날 밤, 김 감독의 방문을 두드렸다. 영문을 모르는 김 감독에게 헥터는 "나를 믿어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투구수 123구를 던질 때까지 교체하지 않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는 감사 표시였다. 김 감독은 "네가 길게 던져줘 오려 내가 고맙다"고 웃으며 돌려보냈다. 김 감독은 가끔씩이던 이닝 중간에 투수나 야수를 바꾸지 않는다. "선수 가족들도 보고 있다"는 것이 소박한 이유다.



KIA 김기태 감독

헥터에 관해 말할 때, 마침 통역이 지나갔다. 김 감독은 헥터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통역의 개인적 신상에 관해 물었다. 평소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훈련보조원, 청소 아주머니 등,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김 감독의 눈길은 머문다. 김 감독의 관계 맺기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에 가깝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인간적 매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다." 역시 시바 료타로의 말이다. 어떤 면에서 김 감독은 계산으로 잡히지 않는 신의, 예의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중세적인 사고의 소유자다. 합리성의 시대에 김 감독의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비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그 만큼 사람을 비유 혹은 효율로 취급하는 우리 시대에 '휴머니즘'이 희소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2부 기자 galzby@donga.com



류현진

'선발 생존' 류현진 23일 메츠전 등판

LA 다저스 류현진(30)이 선발 등판 일정을 앞당겼다. 당초 등판이 유력했던 콜로라도 로키스전에는 등판하지 않는다.

류현진의 올 시즌 12번째 선발등판 맞상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맹주 뉴욕 메츠다. 다저스는 알렉스 우드(26)를 선발로 내세워 23일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데이브 로버츠(45) 감독은 우드와 류현진의 등판일정을 맞바꿨다. 류현진이 23일 메츠전, 우드가 24일 콜로라도전에 각각 선발 등판한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유독 어려운 투구를 했던 류현진에게 이번 등판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콜로라도를 상대로 3경기에 나섰는데 승 없이 3패만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6.75로 크게 부진했다. 메츠를 상대로는 2013년과 2014년을 합쳐 총 3경기에 등판했는데, 패 없이 2승 평균자책점 1.80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다저스는 최근까지 운영했던 선발 6인 로테이션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지 않는다. 마에다 겐타(29)가 불펜행을 통보받았다. 로버츠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에다가 불펜으로 향한다. 롱런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29), 알렉스 우드, 브랜든 매카시(34), 리치 힐(37),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선발 5인 로테이션을 당분간 운영한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이병규

1999년에는 잠실구장을 쓰는 구단 최초로 30홈런-30도루 클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38세11개월 10일에 타격왕에 오르며 1982년 백인천(전 MBC청룡)이 작성했던 역대 최고령 타격왕(38세10개월 17일)의 기록을 31년 만에 다시 썼다. 2014년에는 KBO리그 통산 4번째 2000안타이자 최솜경기(1653경기) 2000안타를 달성했다. 골든글러브 7회, 타격왕 2회, 최다안타왕 4회를 수상해 빛나는 선수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1999년 아시아선수권 대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6년 제1회 WBC,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했다.

구단은 이병규의 등번호 9번을 영구결번으로 확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활약한 공로를 높이 샀다. 그의 등번호인 '9'가 두 번 들어 있는 9월 9일 은퇴식은 선수의 고사료 무산됐지만 7월 9일 은퇴식을 결정하면서 새롭게 걸이갈 제2의 야구인생을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정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